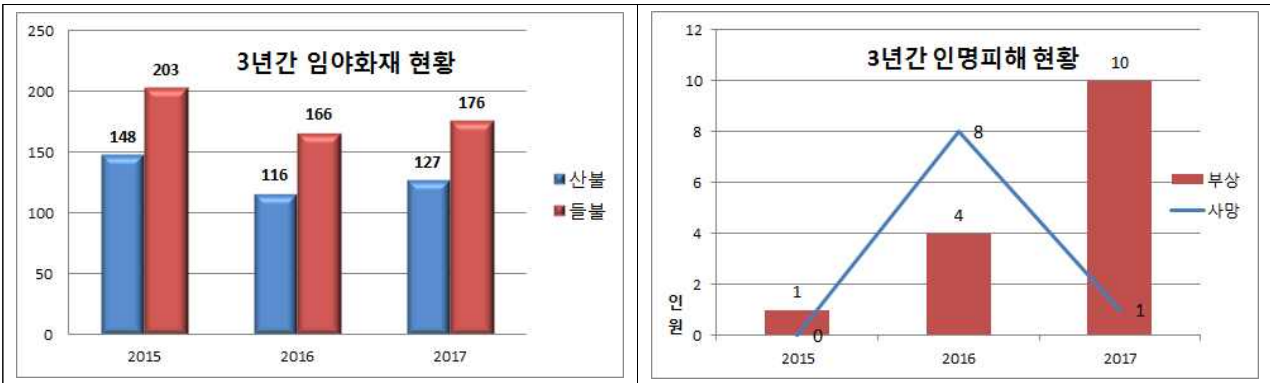


3월 주요 재난 안전사고 예보

봄철 영농기 부주의로 인한 임야화재 주의 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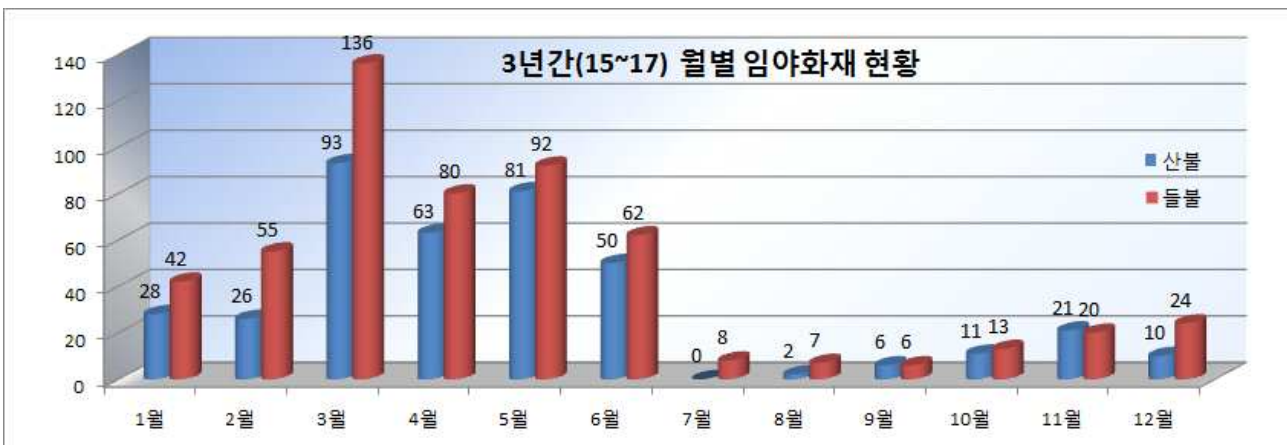
□ 임야화재 발생 현황(2015~2017년)



○ 3년간 임야화재는 총 936건이 발생하여 9,422,935천원(12,691,068 m²)의 재산피해와 24명(사망2, 부상22)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.

○ 임야화재 936건 중 산불이 41.8%(391건), 들불이 58.2%(545건)로 나타났으며, 2016년도 발생건수는 가뭄이 극심했던 2015년 대비 21.6%(32건) 감소하였으나, 들불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. 2017년은 건조한 날씨 탓으로 전년도에 비해 다시 9.5%(11건)이 늘었고,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, 소실면적도 11,170,000m²로 가장 넓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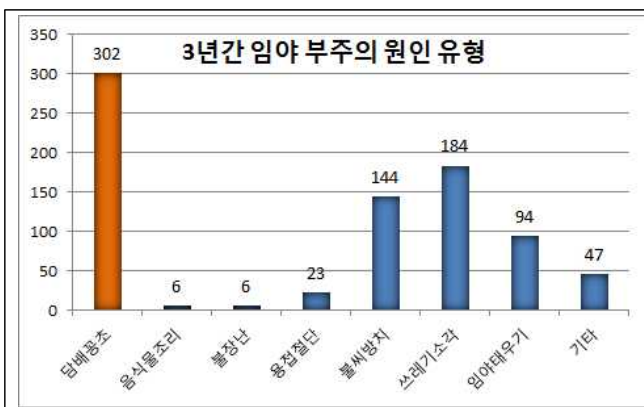
□ 임야화재 월별 현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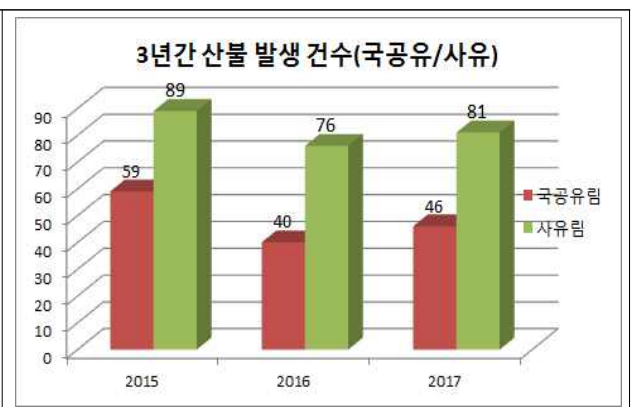
- 최근 3년간 임야화재 월별 현황을 분석해 보면 전체 936건 중 3월 24.5%(229건), 5월 18.5%(173건), 4월 15.3%(143건)로 봄철에 가장 집중되었고, 인명피해도 3년간 총 부상자 22명중 50%(11명)가 3월에 발생하였다.

연도별	건수	피해액 (천원)	피해면적 (㎡)	인명피해	
				사망	부상
계	229	373,347	1,349,933	-	11
2017년 3월	77	250,141	842,990	-	3
2016년 3월	51	1,693	133,148	-	3
2015년 3월	101	121,513	360,560	-	5

- 3년간 3월에 발생한 임야화재 229건 중 산불은 40.6%(93건)이고, 들불(들판, 과수원, 묘지 등)은 3년간 총 545건의 화재중 3월에 24.9%(136건)가 발생하였다.(15년 58건, 16년 30건, 17년 48건)
- 산불화재는 3년간 총 391건으로 사유림이 전체의 62.9%(246건)를 차지했다. 3년간 3월중에 발생한 산불 93건중 국·공유림 28건(34%), 사유림 65건(69.9%)으로 나타났다. 2017년은 전체 산불화재 127건 중 사유림이 81건(63.8%)을 차지했다.
- 들불 발생원인은 담배꽂초, 쓰레기 소각, 농업부산물 및 논·밭두렁 소각 등 부주의가 전체의 93.4%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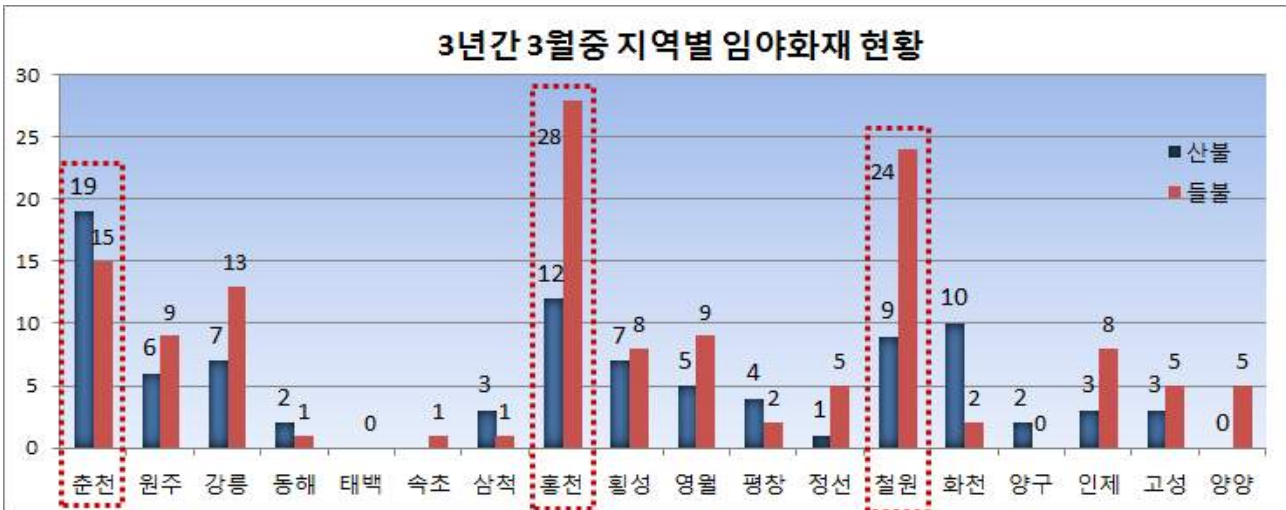
[3년간 임야화재 부주의 유형]



[3년간 산불 장소별 현황]

□ 지역별 임야화재 발생

연도별	건수	지 역 별																	
		춘천	원주	강릉	동해	태백	속초	삼척	홍천	횡성	영월	평창	정선	철원	화천	양구	인제	고성	양양
계	229	34	15	20	3	-	1	4	40	15	14	6	6	33	12	2	11	8	5
2017년 3월	77	19	5	3	1	-	-	1	15	3	8	2	-	7	3	1	6	3	-
2016년 3월	51	7	7	5	-	-	1	-	9	2	2	-	2	9	4	-	2	1	-
2015년 3월	101	8	3	12	2	-	-	3	16	10	4	4	4	17	5	1	3	4	5



○ 3월중에 발생한 229건의 임야화재 중 단위 면적이 가장 넓은 홍천군에서 17.5%(40건)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, 다음으로 춘천 34건, 철원 33건, 강릉 20건, 원주·횡성 각각 15건, 영월 14건 순이었다.

○ 3월중 임야화재 종류별·지역별 발생율을 분석해 보면, 산불은 춘천 20.4%(19건) 홍천 12.9%(12건), 화천 10.8%(10건), 철원 9.7%(9건), 강릉 7.5%(7건), 원주 6.5%(6건) 순이었고, 태백과 속초는 3년간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다.

3월중 들불은 홍천 20.6%(28건)로 가장 많았고, 철원 17.6%(24건), 춘천 11%(15건), 강릉 9.6%(13건), 원주와 영월이 각각 6.6%(9건) 등의 순이었다. 태백과 양구에서는 3년간 들불이 발생하지 않았다.

농사철이 시작되는 3월부터 4월까지 들불화재가 많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시기이므로 논·밭두렁 소각 행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.

봄철 산불예방(안내문)

- 산림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입니다.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산행할 때에는 산불을 조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산불조심기간 동안에는 산불 위험예보에 따라 전국의 주요 산의 입산을 통제하거나, 등산로를 폐쇄하고 있습니다.
- 등산이나 입산하실 경우 산림청 홈페이지나 관할 시·군·국유림관리소 등 산림부서에 문의하셔서 입산 또는 등산이 가능한 곳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, 야영, 모닥불을 피우거나 흡연을 하지 않습니다.
-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근접한 지역의 논·밭두렁이나 농산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건수는 연평균 약20%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를 받거나 마을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.
-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·군·국유림관리소 등 산림관서나 119, 경찰서 등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산행중 산불발견시 대처요령

- 산불이 난 상황에서 사람들이 대피
- 산불 발견시 119, 산림관서, 경찰서로 신고한다.
-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외투를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할 수 있다.
-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한다.
- 불길에 휩싸일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화세가 약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한다.
- 대피장소는 타버린 연료지대, 저지대, 연료가 없는 지역, 도로, 바위 뒤 등으로 정한다.

- 산불보다 높은 위치를 피하고 복사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.
-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낙엽, 나뭇가지 등 연료가 적은 곳을 골라 연소물질을 긁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다.

산불예방 참여요령

- 산행 전에는 입산통제,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는 산행을 하지 않는다.
- 입산 시에는 성냥,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는다.
- 취사를 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실시한다.
- 성묘, 무속행위로 불가피하게 불씨를 다루어야 할 경우 반드시 간이 소화장비를 갖추도록 한다.
-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 소각해야 할 경우 해당관서에 사전 허가를 받고, 불씨가 산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하고 소각한다.
- 산림 또는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씨를 다루지 못하게 하고, 산불조심을 당부한다.
- 산불원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경찰 혹은 산림관서 등에 신고한다.